

2000年代 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現狀 研究

朴 太 用

世宗大學校大學院 패션디자인學科 碩博士統合科程

A Study on the Nudism Expressed in the 2000's Fashion

Park, Tae-Yong

Master &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considered nudism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secondly to consider the cultural meaning of the nudism fashion expressed in the 2000's and thirdly to clarify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nudism fashion style in the 2000's.

For these purposes, documentary studies about nudism in social science and psychology were analyzed and then objective studies with fashion magazine after the 2000 and clothes released at various collections were performed for studies about nudism fashion in the 2000'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Nudism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was divided into Naturalism, Counteracting culture, Eroticism and Narcissism.
2. Fashion, influenced by nudism, tended to express the beauty which emphasizes the functional aspects of nude and includes the decorative characters.
3. Nudism in the 2000's fashion was summarized as Eroticism nudism fashion, Primitivism nudism fashion and Futurism nudism fashion.

Key words: Nudism Fashion(누디즘 패션), Eroticism(에로티시즘), Naturalism(자연주의), Primitivism(원시주의), Futurism(미래주의)

I. 서론

최근 '육체'에 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담론들이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매거진, 신문, 패션 등 많은 분야에서 '누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한국의 누드미학 2003展'이 적지 않은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무명 혹은 Top 스타들의 누드 영상집을 비롯하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픽 참가 여자 선수들의 누드집, 거침없는 누드로 긴장

과 충격을 준 독일 출신 사진작가 헬무트 뉴튼(Helmut Newton 1920~2004)展에 이르기까지 연예계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면에서도 '누드'는 음지가 아닌 양지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 시대와 문화에서 대중 내면의 심리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거울(A mirror of the time)이라 할 수 있는 패션에서도 이러한 누드를 추종 혹은 지향하는 '누디즘(Nudism)'은 면면히 드러나고 있다.

1960년대에 크게 붐을 일으킨 누디즘 패션은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들어선 2000년대에 와서 더욱 확

산되게 되는데, 패션에서 ‘누드미학’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세계의 패션계에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있다. 특히 최근 컬렉션에서는 가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누디즘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비주얼 광고에서는 남녀의 음모와 성기까지 등장시키고 있어¹⁾, 이러한 누디즘 패션 현상은 서구를 넘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기적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누디즘’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자연주의, 저항문화, 에로티시즘, 나르시시즘적 개념의 누디즘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누디즘이 패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복의 착용동기와 누디즘 패션의 역사를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2000년대에 패션에서 나타난 누디즘 현상의 문화적 의미와 누디즘 패션의 조형성을 에로티시즘 style, 원시주의 style, 미래주의 style로 나누어 그 조형성과 내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우선 이론적 고찰을 위해 국내외 문헌 및 연구논문, 국내외 정기 간행물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으며, 시각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발간된 VOGUE U.S.A, VOGUE KOREA, Fashion News, Mode et Mode, High Fashion 등의 패션 매거진을 참고로 하였다.

II. 누디즘

1. 누디즘의 발생 및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누디즘(nudism)은 ‘나체주의’라는 뜻으로 대체로 건강이나 편의를 이유로 해서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관행²⁾을 말한다. 누디즘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의 엄격한 도덕적 태도에 대한 반발로 20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뒤 전 유럽으로 번져나갔고, 1930년대에는 북아메리카에서 자리 잡았으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몇몇 따로 떨어져 있는 캠프나 해변가에서만 행해졌다³⁾. 누디즘은 때로는 건강

과 자연을 느끼기 위한 자연주의자들(naturalists)의 나체주의로, 때로는 기성권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저항적 누디스트’나 ‘계몽적 누디스트’들의 알몸시위로, 한편으로는 병리학적으로 관찰했을 때 ‘노출증’이나 ‘관음증’ 혹은 ‘나르시시즘’에서 관찰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누디즘(nudism)이 -ism, 즉 -주의로 명명되기 이전에 나체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나 복식형태의 것이 존재하는 시대에 일상생활,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누드 혹은 반누드(semi-nude)로 생활하였던 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 훨씬 이전부터의 일이다.

Fuchs(2002)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의 ‘나체’에 대한 태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 아내, 자식이 하인과 함께 이렇다 할 벽으로 칸막이가 쳐지지 않은 공동의 한 침실에서 나체로 잤으며 이것은 농민이나 하층계급에서만 이 아니고 상류시민 계급의 명문가에서도, 나아가서는 귀족계급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손님 앞에서도 그러했다⁴⁾. 이것은 나체, 즉 누드에 대하여 스스럼없는 개념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나체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과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신들의 누드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expose)”, “심판받으며(umpired) “부러움(ennviousness)”을 사기위한 것이었다. Fuchs(2002)에 의하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알몸의 여자는 보랏빛 옷을 걸친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다”라는 의견이 신봉되었는데, 이처럼 매일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능한 한 대담하게 노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방”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전신누드와 부분누드가 어느 정도는 용납되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누디즘은 건강이나 편의의 이유로, 혹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체로 생활하는 자연주의자들이 발생한 20세기 훨씬 이전 시대부터 다른 이유 즉, 관능과 구애의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 혹은 전체를 드러내는 누드 현상을 나타내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누디즘의 발생배경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누디즘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1) 자연주의적 누디즘 개념

Skrine and Furst(1986)에 따르면, 원래 자연주의란 유물주의(Materialism), 쾌락주의(Epicureanism), 혹은 여러 형태의 세속주의(Secularism)를 뜻하는 것으로 고대 철학에서 사용되던 말로서 이러한 어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는 또한 자연주의(Naturalism)라는 말은 '자연(Natural)' 이니 '자연적인 것(Naturalness)' 이니 하는 말들을 곧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지칭하는 범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으나, 사용되는 더 많은 용례에 접하면 접할수록 그 용어의 광범위한 영역과 복합적이고 잠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⁵⁾. 일반적으로 자연주의라는 용어는 문학비평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19세기 유럽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제가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여, 자연이 인간의 생의 터전인 동시에 인간이 속한 모든 환경으로서 인간의 미의식과 예술 활동의 모체가 되어왔다⁶⁾.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연주의는 문학과 미술에서 말하는 자연주의와는 조금 그 뜻을 달리 하여, 여기서는 오히려 원시주의(Primitivism)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원시주의에 관한 최초의 정의는 프랑스의 라루스 사전(1897-1904)에서 "원시적인 것의 모방"으로 기술되었다⁷⁾. 이후 웨스터 사전에는 "자연에로의 회귀를 함축하는 원시적 삶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것"으로 수록되었으며, "물질적으로 덜 발달되고 문명의 초기단계에 있는 사회의 덕목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하지수(1993)는 이러한 원시주의 양식의 현대적 개념으로 감성성, 유희성, 자연성, 토속성을 말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자연성과 토속성에 초점을 두고 이 두 양식적 특성의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며 신체를 드러내어 놓는 특성을 자연주의적 누디즘의 한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브리태니커 온라인의 최신용어사전에 수록된 자연주의자(Naturalist)는 자연에 애정과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 1970년대 이후 열대 우림 지역의 감소, 사막화, 산성비 등 해마다 지구환경이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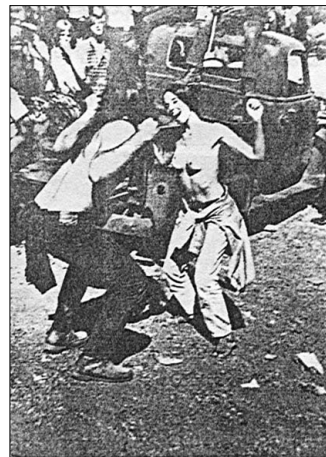
각하게 오염되자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착된 말이라고 한다. 이런 '자연주의자'라는 용어의 다른 용례로 사용되는 것이 '나체주의자'를 뜻하는 nudist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자연주의자'와 '나체주의자'를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자연주의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자연에 애정과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의 자연주의자(Naturalist)나 자연적인 상태를 추구하여 의복을 입지 않고 살고자 하는 나체주의(nudism)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연주의적 누디즘 개념은 대체로 건강이나 편의를 이유로 해서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관행을 말하고자 한다.

2) 저항문화에서의 누디즘 개념

간문자(1994)에 따르면 저항문화는 하위문화적 요소로 인해 하위문화 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지배계층의 모 문화에 대항하는 것 같은 투쟁적 요소와 함께,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의 문화적 지배를 타파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것이다⁸⁾라고 하였다.

한상복(1990)에 의하면, 정치적 저항이나 비판 세력에 의해 민요나 유행가가 풍자와 고발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고⁹⁾, 집단시위(demonstration)나 일인시위, 소



<사진 1> 가슴을 내놓은 히피여성 LIFE the '60s

극적인 방법으로는 T-shirt에 저항적 문구를 새겨서 입었으며,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알몸시위를 하여 기성 권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저항적 누디스트' 나 '계몽적 누디스트들'에게 최대 선전효과를 안겨주 기도 하였다.

이러한 저항문화의 첫째로 히피문화를 들 수 있겠는데, 히피는 거침없는 자아표현과 기성세대의 금지로부터의 자유를 구별되는 스타일, 의복, 음악, 태도를 가짐으로서 자유롭게 참자아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가정, 학교, 직장, 사회로부터 물질적 가치의 강조에 대한 반발로서 동방의 신비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구별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Jane & Michael Stern(1990)에 의하면 이러한 히피들은 인체의 완전함을 재발견하면서 벗기 시작하였는데 벗은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나체로 경작하고, 수영하며, 정원에 누 어있기도 하였으며, 여성들에게 가슴을 노출하는 것이 인기가 있어 히피 소녀가 가슴을 내놓고 민속춤을 추는 것을 보고 방문객들은 놀랐다고 한다¹⁰⁾(사진 1).

간문자(1994)에 따르면, 히피 여성의 가슴노출은 성도덕과 관련되었다. 히피들이 주장한 사랑이 처음에는 순수한 이상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프리섹스, 그룹섹스의 성적인 문란으로 변질되어 사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문란한 성적 태도는 성에 대한 관대함을 가져왔고, 성에 대한 관대함은 육체의 노출로 이어졌는데, 모든 히피가 항상 나체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원하는 사람은 나체일 수가 있었고, 여자들은 가슴을 노출하여 그때까지의 사회 규범을 무시하였다고 한다¹¹⁾.

최근 히피의 누디즘 운동을 촬영한 사진들을 모은 책이 타센(TASCHEN)출판사에서 발간돼 60년대 사회 변혁운동을 주도했던 청년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춘남녀들이 사막과 해변, 숲 속에서 누드로 애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파격을 넘어 '금기' 도전이나 '성역' 파괴로까지 비추어졌으며, 히피들에게 있어 이러한 누디즘은 철학과 이념의 실천장이었다¹²⁾고 한다.

또한, 사회적 저항의 한 수단으로 누디즘을 활용한 것으로 반(反) 모피운동을 위한 누드 촬영 및 퍼포먼스가 있다. 이들은 '모피를 입느니 차라리 벗겠다.'며 과

감한 누드를 선보였던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을 비롯하여, 모델 겸 가수 이모젠 베일리 등을 들 수 있겠다.

3) 에로티시즘적 누디즘

에로티시즘이란 그리스어로 에로스(eros)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사전적 해석은 '성적인 만족을 위한 양식으로서 호색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그것을 고양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Joseph Campbell(1964)은 '에로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선조요 근원적 창조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¹³⁾, 에로티시즘은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주로 육체적 사랑, 즉 성애(性愛)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이란 생물로써의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생식행위와는 무관한 본질로 심리적 기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김덕자(1989)에 따르면 에로티시즘은 성욕, 애욕, 그 자체가 아니고 애욕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유발하기도 하며 표현하기도 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자연적, 동물적 목적과는 독립된 심리적 욕구로서 인간의 문화적 전통과 신화, 습성, 종교, 예술 등의 내부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성이 감정적 측면인데 반해 에로티시즘은 성의 객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에로티시즘은 나르시즘적 고통과 유발성, 유희성, 도박성을 그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수많은 화가들로 하여금 누드의 신비로움을 에로티시즘에 견주어 표현하였다. 조르류 바타유(1977)도 "공적인 성적 활동과 에로티시즘은 서로 대립 한다"고 전제하고 종족번식과 에로티시즘을 구별하였다¹⁵⁾.

Freud가 생각한 총체적 퍼스널리티(personality)는 원본능(id)·자아(ego)·초자아(super ego)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퍼스널리티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쓰이는 모든 에너지는 본능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 중에서 성적 본능이 가장 강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본적인 본능은 전환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본능이 의복 착용동기와 연관된다는 연구를 한 사람이 Flugel이다. Steele(1985)에 따르면 Flugel은 인간에게 있어 옷은 가리는 동시에 노출시키는 목적을 갖는다고 했으며, 내보이고 싶은 욕구와 정숙성 사이에

서의 무의식적인 갈등은 의복으로 수치스런 몸을 가려 정숙성을 충족시키려 하나 은폐된 신체에 관심을 끌기 때문에 '절충'으로써 작용한다고 하였다⁶⁾.

이러한 에로티시즘은 현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적 가치관과 더불어 에로티시즘의 표현도 변천을 거듭해 왔다. 이홍주(1990)에 의하면 인간의 누드(nude), 특히 여성의 누드는 제일의 에로틱한 이미지로서 모든 문명과 역사상 모든 예술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누드는 옷을 입지 않은 알몸의 상태(naked)란 뜻과는 구별되어, 균형 잡힌 건강하고 자신에 가득한 육체, 즉 재구성된 육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⁷⁾. 한수현(1993)은 특히 중세 이후로부터 노출은 인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성미의 표현이나 인체의 장식적 요소로서 그 위치를 바꾸게 되었고 에로티시즘을 대변하게 되었다⁸⁾고 하였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은 생물로서의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나 생식행위와는 무관하며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기초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여러 행위결과 중에 패션에도 그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패션에서의 누디즘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된다.

4) 나르시시즘적 누디즘

정신분석학에서 누디즘은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연관된다. 나르시시즘(Narcissim, 자기에)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이라는 용어는 희랍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키소스라는 인물로부터 유래됨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19세기 P. 네케가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의 용어로 사용한 것이 처음이며, 이때의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는 성도착증의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이후 Freud의 자기에적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Freud(1957)는 나르시시즘을 "리비도(libido)⁹⁾의 본래적 성향"으로, 개인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거나 만짐으로써, 즉 자신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⁰⁾.

정신분석학에서 여성의 나르시시즘은 필요한 방어로 보는데,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과도한 자만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가 남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즐김으로써, 자신의 해부학적 운명인 수치심과 열등감

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한국일보("여성의 노출", 2001)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의들은 적절한 수준의 당당한 노출은 매우 정상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을지대병원 정신과 이범상 교수는 '여성들의 노출은 반드시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성적 의미보다는 자신의 몸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기애(Narcissism)와 남들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충족 욕구가 주요인'이라며 '낮선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싶어하는 병적인 노출증(Exhibitionism)이나 지나친 과시벽과 같은 정신과적 질병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또한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여성의 노출은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득재(1993)에 따르면, 각각의 육체의 부분 기관들을 육체의 노출에 이용하는 것으로 사람의 얼굴 표정을 천 이백가지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육체의 각 부분기관들을 변화무쌍하게 환영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깨를 노출시키는 방법, 가슴을 노출시키는 방법, 등을 노출시키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옷을 디자인하는 방법은 아주 변화무쌍하며, 이렇게 다채롭게 나뉘어진 육체의 부분들은 메를로-퐁티(Maurice Merlo-Ponty)가 말하는 '환영화된 사지(四肢)'처럼 노출된 육체의 주체에게 나르시시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육체를 노출시키는 누디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신체를 사랑하는 방법의 한 가지 표현으로써 자신의 몸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기애(Narcissism)와 남들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충족 욕구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패션에서의 누디즘 현상

복식사전(1994)에 따르면, 누드는 "나체·벌거벗은"이란 뜻으로, 누드 룩은 벌거숭이와 같은 옷차림, 혹은 맨살을 살린 옷차림을 말한다. 대담한 컷으로 노출부분을 많이 한다든가, 오건디 등의 투명한 천으로 몸의 선을 비치게 하여 맨살이나 나체 실루엣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스타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삼호(2000)에 따르면, 누디즘 패션은 기계 문명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을 그리워하며 원시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표출된 것이다²²⁾라고 하였다.

즉, 패션에서의 누디즘 현상은 '누드 룩' 혹은 '누디즘 패션'을 지향하면서 인체를 감추기 보다는 인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서 인체의 실루엣이나 피부(skin), 인체의 각 부위를 표현 혹은 부각시키는 패션 현상을 말한다.

누디즘 현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볼 수 있었는데, 패션의 누디즘 현상도 정삼호(2000)의 지적처럼 자연을 그리워하며 원시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의 표출 뿐 아니라, 작게는 사회저항이나 자신의 주장을 사회에 부각시키려 할 때에도 나타나며, 많게는 자신의 누드 혹은 누드라 인식할 수 있는 의복을 통해서 이성 혹은 타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누드에 대한 자기에 즉, 나르시시즘의 표현으로 패션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패션에서의 누디즘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복의 착용동기

패션의 누디즘 현상을 논하자면 의복의 착용동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영자(1998)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복을 만들어 입으며 치장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행위는 인류가 존재하면서 계속되어 왔다²³⁾고 한다. 학자들은 의복의 착용동기를 대체로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신체보호설로 외부 물체에 의한 상해를 막기 위해 인체 각 부분에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물체를 착용했다는 설이다.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신체보호설과 주술적 표현을 함으로써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한 심리적 보호설이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으로부터의 신체 보호설만으로는 의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데, 기후가 온화하여 신체 보호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도 의복이

발달되었으며, 반면에 혹독한 자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복 없이 견디어온 종족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숙성과 비정숙성설이 있는데, Wondt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여 인체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숙성설이 가장 널리 알려진 오래된 학설이나 민족, 시대, 지역 혹은 연령층에 따라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Westermarck는 사람들이 노출된 부분보다 가려진 부분에 대한 연상을 하게 되므로 이성에게 보다 큰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비정숙성설이 있다. 다음으로 신체 장식설이 있는데, 이것은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즉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고 매력있게 장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복식 착용의 가장 강하고 근본적인 동기로 보는 설이다.

이와같이 인간의 의복착용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어느 것 한 가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착용동기를 비정숙성 즉 의복을 통하여 이성을 유혹하고자 하는 에로스적인 작용과 또한 장식된 자신의 신체 혹은 의복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인 신체 장식설이 본 논지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학설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패션의 누디즘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것(naked)이 아니라 옷을 벗음으로서 무엇인가를 얻거나 취하고자하는 의미에서 누드(nude) 혹은 누디즘(nudism)을 하나의 장식이요 패션으로 보고자 한다.

2 누디즘 패션의 역사

의복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어느 시대이건 몸의 일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던 때가 없다. 각 시대마다 인간은 어깨나 가슴, 힙, 허리, 다리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표현욕구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의복의 착용동기가 어떠한 의복이 발생된 이래로 인체의 노출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집트 여자 복식에서는 유방에서 끈이 달린 쉬스 스커트(sheath skirt)를 입거나 거의 누드 같은 유혹적인 투

명한 드레스를 입은 것을 볼 수 있고, 한수연(1993)에 의하면, 중세 이후로부터 노출은 인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여성미의 표현이나 인체의 장식적 요소로서 그 위치를 바꾸게 되었고 에로티시즘을 대변하게 되었다²⁴⁾고 한다. Fuchs(2002)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알몸의 여자는 보랏빛 옷을 걸친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다”라는 의견이 신봉되었는데, 이처럼 매일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능한 한 대담하게 노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방”이었다. 그에 따르면 개인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어느 때이든 과시하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복장의 중요한 특징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목적미가 의복을 통해서 강화되었는데, 여자의 복식은 수없이 대담한 데콜타주(decolletage: 옷깃을 깊게 파 어깨, 등, 가슴을 드러내는것), 즉 아주 대담한 유방의 노출이 성행하였다.

이렇게 여성의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패션은 엠파이어 스타일 시대(1789~1815)에 와서 극히 얇은 의복을 통하여 다리, 가슴, 팔 등을 노출하게 된다. 이 시대의 여성들은 몸에 더욱 밀착된 효과를 얻기 위해 얇은 머슬린을 적셔 입어 맨살이 완전히 비쳐 마치 누드를 보는 듯 하게 입었는데 이로써 머슬린 병(muslin disease)까지 생기게 되었다. <사진 2>는 가슴이 완전히 드러나는 투명한 슈미즈를 입은 여인의 초상화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의복을 통한 인체의 노출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거나 투명한 소재를 통한 간접적인 노출이었으며, 의복 디자인 자체가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경희(2001)에 의하면, 누디즘이 패션에서 표출되게 된 것은 1950년대 비키니의 등장으로 나체로의 길이 진일보하였으며, 1960년대 시스루 블라우스와 토플리스(topless) 수영복<사진 3>의 등장으로 누디즘은 점점 확대되었으며, 스트리트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가슴과 등의 노출도는 점점 커지고 때로는 유방의 일부를 보이는 모드가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루디 건라히(Rudi Gernreich)의 토플리스 수영복은 가장 대담하게 육체를 드러낸 모드로 경찰은 처음 이것을 제재했지만 곧 눈을 감게 되었다. 건라히의 이러한 디자인은 1965년 “NO` Coll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사진 2> chemise(1800) 『Infra-Apparel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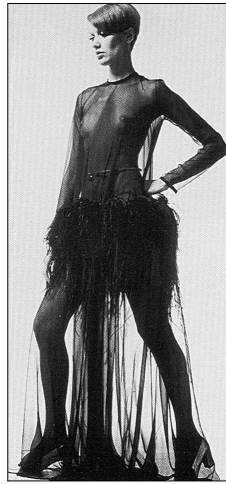
언더웨어 시리즈를 탄생시키는데 ‘No-Bra’ bra, ‘No-Back’ bra, ‘All-In-None’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이것은 여성이 의복의 어떠한 저항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였다²⁶⁾.

이렇게 상체를 노출시키고 가슴을 드러내놓는 패션은 저항문화의 하나인 히피의 패션에서 그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간문자(1994)에 의하면, 성 관념이 개방됨으로 인해 여자 히피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게 된 현상은 하이패션에 자극을 주어 패션의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게 하였다²⁷⁾고 밝히고 있다. 이는 루디 건라히의 topless 수영복과 드레스, 웨딩 드레스, 노브라 브라 등과 함께, 이브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시스루(see-through) 블라우스(<사진 4> 참조), 그리고 알렌 존스의 엉덩이에 구멍 뚫린 웨이트리스 복장을 예로 들어 히피의 저항적 표현과 나체 문화가 신체를 노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topless 웨어나 씨스루 웨어는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일반화되어 모 패션으로 정착하진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누디즘은 점점 확대되어 공인, 비공인의 누디스트 캠프가 각지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 누디즘은 스트리트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갔다. 가슴과 등의 노출도는 점점 커지고, 때로는 유방의 일부를 보이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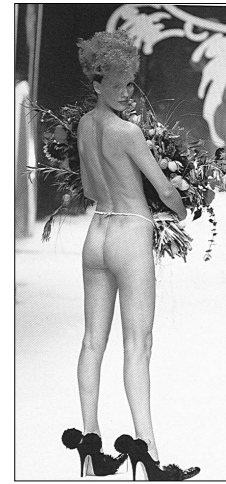
〈사진 3〉 Rudi Gemreich, 1967 『Icons of Fashion p. 92』



〈사진 4〉 Y.S.L 1968 a/w 『Icons of Fashion p.105』



〈사진 5〉 Paco Rabanne, 1998 『La Mode 1900-1999, p.378』



〈사진 6〉 V. Westwood, 1998 『La Mode 1900-1999, p.458』

드가 나타났다²⁸⁾.

이러한 누디즘 패션은 1990년대에 와서 60년대를 동경하는 복고풍 모드와 함께 패션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누디즘적 경향의 디자이너로는 기 라로쉬(Guy Laroche), 미치코 코시노(Michiko Koshino), 소피 시트본(Sophie Sitbon), 헬렌 스토리(Helen Story) 등을 들 수 있다. 인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디자이너로 빠코 라방느(Paco Rabanne) 역시 전위적이고 미래파적인 디자인을 하였는데, 그는 금속이나 특수한 소재를 이용하여 의복을 표현하였으며 그의 디자인은 인체가 부분적으로 보여 지는 모드를 취하고 있다. 〈사진 5〉는 그의 1998년도 작품으로 새천년의 목동의 열망이라는 주제로 원시종족 문신과 같은 문양으로 금속을 절단하여 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누디즘 스타일의 패션으로, 1998년 1월 『Sunday Times Style』은 가족 잡지라는 이유로 빠코 라방느의 이 작품을 게재하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시의 향기를 표현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규방》이라는 주제의 1998년도 작품(사진 6)은 원시종족의 요의(腰衣)와 같은 형태의 끈으로 극히 치부만 가리고 부케를 한 다발 안고 있는 모델을 등장시킴으로써 누디즘 패션의 극단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90년대까지 나타난 누디즘 패션의 역사를 보면, 고대에서부터 인체의 일부분을 노출시킴으로써 이성에 대한 에로티시즘을 유발하고자 하였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히피의 저항정신과 함께 성 관념이 개방됨으로써 여성의 과감한 노출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이것은 에로티시즘의 한 형태로 하이패션에 자극을 주어 일부 디자이너들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누디즘 패션은 1990년대 이후 패션계의 복고무드와 함께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IV. 2000년대 누디즘 패션 현상

1. 2000년대 누디즘 패션의 발생 및 문화적 의미

2000년대에 들어와서 패션에서 그동안 행해지던 노출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어 상체를 완전히 드러낸 다던지 마치 벗은 몸(nude)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담해져갔다. 유방이나 성기를 연상하는 부분(헤어)의 노출도 과감해지고 있다. 〈사진 7〉은 2003년 GUCCI의



〈사진 7〉 구찌광고 「Vogue korea 2003(2) p.152」

광고로 여성의 음모를 G 로고로 깎은 비주얼로 논란을 빚었는데, 이는 유방의 노출이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게 된 패션 시대에 여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누디즘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본 누디즘의 발생배경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겠는데,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소비문화의 확산 및 영향, TV, 잡지, 광고, 인터넷 매체의 폭발적인 발전과 더불어 관능적인 육체와 성의 이미지는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는 더욱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포르노의 범람으로 인해 인터넷 강국화는 유례없는 외설적 풍속화를 연출하였다. 이는 강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무감각해지고 마는 역설적인 사회현상의 반영으로, '하드 코어'에 이미 무감해진 감성은 패션에 있어서 누디즘 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Paul Frischauer(1992)는 이러한 성적인 개방과 매체의 범람은 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더욱 느슨하게 만들었으며, 도처에 '숨겨야 할 영역의 터부'가 예사로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²⁹⁾. 최경희(2002)는 속옷의 걸옷화 현상은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가 붕괴되고 장르의 해체가 발생해 현대 누디즘을 추구하는 경향과 함께, 복식의 양면 가치를 통해 새로운 미의 개념에 부합하면서 내적, 외적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³⁰⁾고 하였다.

한편 현대는 그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산업 사회의 구조 속에서 풍족한 물질

문명의 혜택을 추구하고 동시에, 물질만능주의에 억눌린 인간성 회복 및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식의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수(1993)는 이러한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자연주의적, 생태학적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으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인간의 본성을 표출시키며 영혼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원시미술을 동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에 있어서도 자연과 원시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옷으로써 인체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림으로써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³¹⁾.

또한 최근의 웰빙 열풍과 몸 가꾸기 경향으로 잘 다듬어진 몸매를 과시하고자 하며 건강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추세가 패션의 누디즘 현상에 한몫을 하고 있다. 즉, 너나 할 것 없이 '트레이닝 된 몸'을 자랑하고 웬만한 노출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 이유에서 발생한 2000년대의 누디즘 패션의 경향으로 우리 몸은 옷감 혹은 의복을 이루는 소재로부터 감춰지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으나 인간의 장식하고자 하는 욕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어서, 옷이 아닌 피부(skin)에 직접 장식을 가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Tattoo(문신)나 헤나(henna·살갓 염색)와 스티커의 유행이고, 피어싱(piercing·뚫기)이 얼굴이나 귀 뿐 아니라 배꼽, 심지어 유두에까지 행해짐으로써 페티쉬의 경향까지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성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여성의 관능미의 극대화를 이끌기 위해 유두착색과 같은 패션도 선보이기도 하였다.



〈사진 8〉 Backless brief 「media daum」

한편 이러한 패션의 누디즘 경향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패션 시장에서도 속옷의 끈을 완전히 없앤 '누브라'가 대중의 선택을 받게 되었고, 속옷시장에서도 속옷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브라지어, 팬티, 거들 등으로 성향을 이루고 있으며, T 팬티나 에어스타킹(air-stocking)에 이르기까지 누디즘 패션은 디자이너 컬렉션의 캣워크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파고든 실정이다. 최근 호주에서는 완벽한 노출패션을 위한 backless-brief 즉, 뒷면 없는 팬티(사진 8)까지 출시되어 누디즘 패션의 일반화에 일부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2000년대에 나타난 누디즘 패션의 조형성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에 나타난 누디즘 패션을 그 이미지별로 에로티시즘 style, 원시주의 style, 미래주의 style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디자인 조형적 특성으로 Topless style, Topless는 아니지만 유두강조 style, See-through style, Bared style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2000년 이후 각종 컬렉션에서 발표된 의상을 「VOGUE U.S.A.」, 「VOGUE KOREA」, 「Fashion News」, 「Mode et Mode」, 「High Fashion」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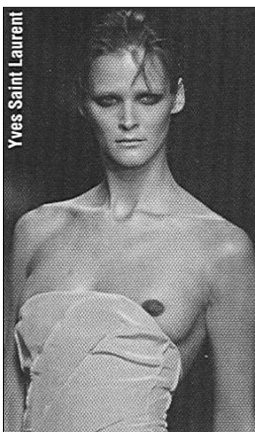
1) 에로티시즘 style

에로티시즘 스타일은 광의로는 누디즘 스타일이 거의 성적매력을 부각시키면서 에로틱한 이미지를 풍기지만 여기서는 협의의 의미로 이것은 인체의 성의 상징이 되는 부분을 대담한 노출로써 표현하여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특징으로는 가슴을 드러내거나 유두착색 등으로 강조, 혹은 아주 극소의 부위를 가려서 언제 드러날지도 모르는 긴장감을 주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진 9〉는 Yves Saint Laurent의 2003년 파리 컬렉션의 작품으로 유두에 보라색을 칠하여, top을 입었으나 그 의도는 다분히 유두를 보여줌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누디즘 패션의 하나였다.

〈사진 10〉는 톰 포드의 2003년 GUCCI 컬렉션 작품으로 일본풍의 가운을 걸치고는 있으나 완전한 토플리스를 선보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는 “해변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토플리스로 선택을 즐깁니다. 컬렉션에서도 토플리스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라고 하여 현대의 누디즘 패션경향을 여실히 증명하는 인터뷰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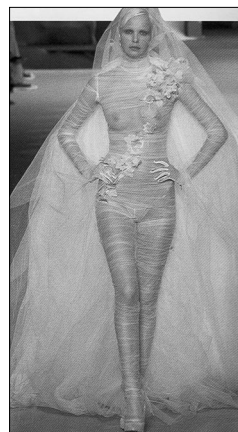
〈사진 11〉은 Jean Paul Gaultier의 Gaultier Paris 2003-4 컬렉션의 작품으로 순결과 정숙의 상징인 웨딩드레스를 완전한 See-through로 디자인하여 마치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것과 같이 가슴과 바디라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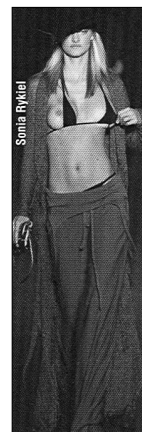
〈사진 9〉 Yves Saint Laurent 「Vogue korea 2003(2)」



〈사진 10〉 Gucci 「Vogue korea 2003(2)」



〈사진 11〉 Gaultier Paris 「Mode et Mode 2003」



〈사진 12〉 Sonia Rykiel 「Vogue korea 2003(2)」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는 누디즘 패션으로 에로티시즘의 극치를 달리는 작품으로 보여 진다.

아슬아슬한 노출을 즐긴 또 한명의 디자이너는 Sonia Rykiel로 <사진 12>은 힙 허거 스커트 위에 마이크로 사이즈의 브라 톱을 매치시켰는데 모델들이 워킹을 하자 자연스럽게 유두가 드러나 아주 섹시하게 보인다. 이것은 토플리스보다 더 에로틱하게 느껴져서 마치 모델들이 “내 가슴을 주목해 주세요. 언제 유두가 드러날지 몰라요”라고 말하는 듯하다고 Vogue korea의 에디터 조명숙(2003)은 말하고 있다³²⁾.

2000년대에 나타난 누디즘 패션 중 에로티시즘 스타일의 그 조형적 특성으로는 topless style, topless는 아니지만 이보다 더 유두를 강조하고 있는 유두강조 style, 그리고 see-through를 통해 에로티시즘을 나타낸 style 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2) 원시주의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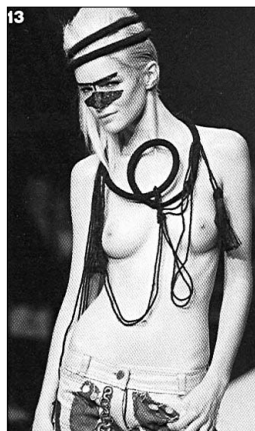
원시주의 스타일은 신체의 일부를 과감히 드러내어 에로틱한 이미지를 풍기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스타일과 형태 장식을 볼 때 하지수(1993)가 말하는 원시주의 양식의 조형적 특성 중 토속성과 같이 야만적이고 신체를 노출시킴으로써 부분을 우선 지각하게 하며, 토속적인 장식을 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시주의 스타일의 누디즘 패션은 2004년도 Arkadius와

Gucci의 패션에서 볼 수 있었는데, 특히 Arkadius는 토플리스의 모델을 많이 등장시켰으며, 드러난 상체에는 Tattoo를 하거나 끈 장식(사진 13)만으로 패션의 원시성과 자연주의적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에로틱한 이미지 보다는 생동감 있고 야만적이며, 호소력 있는 스타일을 선보였다.

<사진 14>과 <사진 15>는 Gucci의 2004년 S/S 시즌 컬렉션의 작품으로 비정형적인 컷팅으로 배를 노출시키고 있어 마치 원시부족여인들이 가죽으로 가슴과 치부의 일부만을 가린 의복의 형태와 유사한 원시주의 스타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스타일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풍기면서도 도시적이기 보다는 자연적이고 원시의 야만을 느끼게 하는 스타일로 부분적 누디즘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진 16>는 J. Maskrey의 2003-4 f/w 컬렉션 작품으로 토플리스에 블루진을 매치시켰는데, 상체에는 나비와 같은 자연문양과 십자가, 음표 등 여러 가지 기호의 스티커를 마치 Tattoo 처럼 몸 전체에 부착시킴으로 바디 페인팅과 같이 원시적인 스타일을 느끼게 한다.

원시주의 스타일의 누디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주로 토플리스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비 정형의 bare style도 보여 지는데, 이때 드러난 신체의 각 부분에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장식을 하거나 끈 장식, 비정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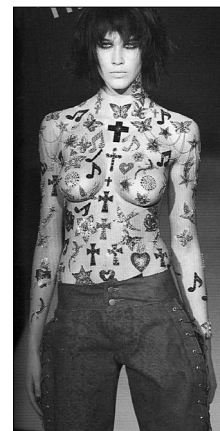
<사진 13> Arkadius 「Vogue korea 20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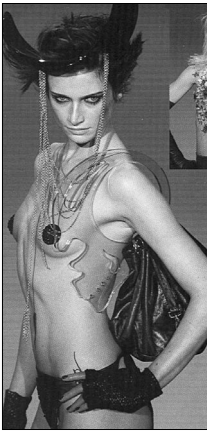
<사진 14> Gucci 「Vogue korea 2003(12)」



<사진 15> Gucci 「Vogue korea 20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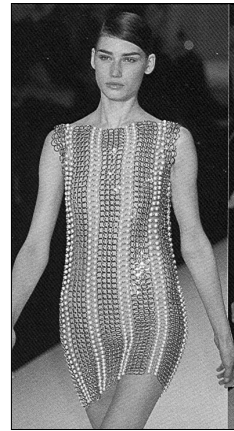
<사진 16> J.Maskrey 「Mode et Mode 2003」



<사진 17> J. Marskery 「Vogue korea 2003(5)」



<사진 18> Issey Miyake 「Fashion News 2004(1)」



<사진 19> Paco Rabanne 「Mode et Mode 2003」

인 라인을 사용하여 원시의 야만이 느껴지도록 연출되었다. 이것은 섹스어필하기는 하지만 에로틱하기보다는 원시의 야만과 자유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하겠다.

3) 미래주의 style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미래주의는 공상과학 영화와 우주복에서와 같이 미래를 이미지로 한 디자인으로 하이테크놀로지(high-technology)의 인공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하며, 스페이스 룩(space look), 코스모코어 룩(cosmocorps look)이라고 한다. 2000년대 누디즘 패션에 나타난 미래주의 스타일은 신소재를 사용하여 미래적인 표현을 실험정신을 통해 표현하면서, 대담하게 신체의 각 부분을 드러내는 누디즘을 보여준다. 또한 유두착색을 통하여 강조하거나 플라스틱, 금속소재 등을 이용하여 페티쉬적인 분위기도 엿보이는 미래주의 스타일도 선보이고 있다.

<사진 17>은 J. Marskery의 2003년 f/w 컬렉션 작품으로 의상이라곤 black의 브리프하나만 입고 상체 장식은 유두착색이 고작이다.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장식한 백팩(backpack)을 하고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함으로써 미래주의적인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18>은 Paco Rabanne의 2003-4 f/w 작품

으로 언제나 그러하듯이 금속을 이용한 미래주의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금속체인의 원피스는 모델의 신체 각 부분 뿐 아니라 바디라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스타일로 옷을 입었으나 전체적으로 누드를 지각할 수 있는 미래주의적인 누디즘 패션이라 하겠다.

<사진 19>는 Issey Miyake의 2004 s/s 컬렉션에 발표된 작품으로 bra-top과 팬티에 미래주의적인 느낌의 소재인 플라스틱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굉장히 스포티브 하면서도 인체에 무한한 자유를 주는 듯 하고 아울러 미래시대에 착용할 만한 느낌을

<표 1> 2000년대 누디즘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이미지	표현기법	소재	대표디자이너
에로티시즘 스타일	섹스 어필	topless 유두강조 성적인 부분 강조	시스루 염료착색 스트레치 소재	YSL Gucci Sonia Rykiel JPG
원시주의 스타일	야만적 자연적	topless tattoo 비정형적 컷팅	비즈 끈 스트레치 소재	J. Maskrey Gucci Arkadius
미래주의 스타일	그로테스크 사이버	몰딩 착색	플라스틱 금속 염료착색	Paco Rabanne J. Maskrey Issey Miyake

강하게 풍기는 누드패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2000년대에 나타난 누디즘 패션의 미래주의 스타일은 새롭다기보다는 1960년대부터 있어왔던 스페이스룩의 진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60년대는 중성적인 이미지였다면 2000년대에 나타난 미래주의 스타일은 성적인 부분의 노출에 더욱 과감해졌으며, 이것은 미래주의 스타일에 그로테스크한 감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누디즘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기적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누디즘'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자연주의, 저항문화, 에로티시즘, 나르시시즘적 개념의 누디즘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누디즘이 패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복의 착용동기와 누디즘 패션의 역사를 통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2000년대에 패션에서 나타난 누디즘 현상의 문화적 의미와 누디즘 패션의 조형성을 에로티시즘 style, 원시주의 style, 미래주의 style로 나누어 그 조형성과 내적 의미를 고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누디즘의 개념을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네 가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째는 자연에로의 회귀를 함축하는 원시적 삶의 우월성을 신봉하고, 자연에 애정과 취미를 가지며,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연주의자의 출현을 의미하고, 둘째는 사회 비판과 저항의 정신을 담은 저항문화에서의 누디즘으로 이는 히피의 누디즘 운동과 반(反)모피주의자나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시위에 나타나는 알몸주의 혹은 누드 퍼포먼스를 의미하며, 세 번째는 현대 패션의 누디즘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에로티시즘적 누디즘으로 이는 뜻 그대로 성적으로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호색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때 누드 혹은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 놓는 현상의 누디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누디즘의 개념은 인체의 장식적 욕구와도 일맥상통하는 나르시시즘적 표

현으로서의 누디즘이 있다. 이것은 자신의 인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의복으로써 인체를 장식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듯이 자신의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어 놓음으로써 자기애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충족 욕구로서의 누디즘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네가지 개념의 누디즘이 현대 패션의 누디즘 현상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자연주의적 누디즘은 자연과 원시를 동경하여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상태인 나체를 패션의 한 형태로서 드러내어 놓게 되었는데, 이는 극단적인 노출과 인체를 속박하는 것이 아닌 형태에 있어서 무한한 자유를 주는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노출이 심한 스타일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저항문화에서 나타나는 누디즘은 히피의 누디즘 패션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히피의 저항정신과 함께 성관념이 개방됨으로써 여성의 과감한 노출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이것은 에로티시즘의 한 형태로 하이패션에 자극을 주어 일부 디자이너들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 에로티시즘적 누디즘은 누디즘 패션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개념으로 앞서 저항적 누디즘에서 본 바와 같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써 누디즘 패션을 취하는 것으로 패션에서의 누디즘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적 누디즘이 누디즘 패션에 미친 영향은 노출된 자신의 신체로부터 애정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형성시킴으로써 당당하게 자신의 신체를 타인 앞에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누디즘 패션의 일반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2000년대에 나타난 누디즘 패션의 조형성은 그 이미지별로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누어졌는데, 그 첫째는 인체의 성의 상징이 되는 부분을 대담한 노출로써 표현하여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스타일로 토플리스나 유두착색, 아주 극소의 부위를 가려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이성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으며,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Y.S.L., Gucci, Sonia Rykiel, J.P.G. 등이 있었다. 둘째는 야만적이고 신체를 노출시킴으로써 패션의 원시성과 자연주의적 경향을 나타낸 원시주의 스타일로 그 조형적 특성으로는 토플리스나 끈 장

식 비정형적 컷팅으로 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J. Maskrey, Gucci, Arkadius 등이 있었다.

세 번째는 스페이스룩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미래주의 스타일의 누디즘 패션으로, 이것은 60년대에 나타난 스페이스룩의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이며, 특히 60년대는 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나 2000년대에는 성적인 부분의 부각시키며 그로테스크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표현방법으로는 몰딩과 착색, 플라스틱과 금속 등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Paco Rabanne, J. Marskey, Issey Miyake 등이 있었다.

2000년대에는 문명화된 사회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자연에 회귀하고자 문명의 산물인 옷을 벗음으로써 자연성을 찾고자하는 진정한 의미의 누디즘이 패션에서도 영향을 미쳐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누디즘 패션이 나타나며, 한편으로는 성문화의 개방과 포르노 등으로 무감각해진 인간의 '하드코어'는 이성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인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노출은 에로티시즘의 극치를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역시 무감각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누디즘 현상이 가속화된다 할지라도 패션에서 옷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은 장식을 자신의 인체에 가함으로써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Sexual Sign, VOGUE Korea, Feb., 2003. p. 152
- 2)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04. Aug., 자료출처 <http://preview.britannica.co.kr>
- 3)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자료검색일 2004. Aug., 자료출처 <http://preview.britannica.co.kr>
- 4) Eduard Fuchs(2002). 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르네상스, 까치, p.51.
- 5) Peter N. Skrine & Lilian R. Furst(1986). 천승걸 역, 자연주의(Naturalism),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
- 6) 강희경(1998),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복식 38호, p. 217.
- 7) Nouveau Larousse Illustree, vol. 7(1897-1904). Paris: Librairie Larousse, p. 32를 인용, 폴고갱의 제1차 타히티 시대 작품을 통한 원시주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0, p. 7에서 재인용
- 8) 간문자(1994). 저항 패션이 모 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 히피풍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2.
- 9) 한상복 외 2인(1990). 문화인류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 361.
- 10) Jane & Michael Stern(1990), *Sixties People*, N.Y. : Alfred A. Knof, p. 165
- 11) 간문자(1994). 앞의 글, p. 58.
- 12) 누드는 허위 깨는 동침, (2003. 4. 27), 굿데이, 자료검색일 2004. 8. 17.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3) Campbell, j.(1964). *Occidental Mythology : vol. 3 from the Masks of God*, New York : Viking Press, p. 235.
- 14) 김덕자(1989). 광고와 에로티시즘, 미진사, p. 62.
- 15) 種村秀弘(1977). *エロチシムの世界意志 : 性の思想*, 東京 : 太平出版社, p. 40.
- 16) Steele, V.(1985). *Fashion & Erotic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 25.
- 17) 이흥주(1990). 팝 아트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p. 9.
- 18) 한수현(1993). 1960년대의 의상에 나타난 미와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p. 93.
- 19) 리비도: 리비도란 굶주림이란 뜻과 비슷한데 굶주림은 무엇을 먹겠다는 욕망이지만 리비도의 경우는 성 본능을 발현시키는 힘이다. 다양한 형태를 띠는 성적 충동의 배후에 놓여 있는 성적 에너지의 정신적 측면. 로저 케네디 지음, 강신옥 옮김 (2003), 리비도, 이제이북스
- 20) Freud, Sigmund(1957), *On Narcissism: An*

- Introduction, In General Selection from the Works of Sigmund Freud*, New York: Doubleday/Anchor.
- 21) 권수현, 이정희, 이준원, 이재경(1996), '외모가꾸기'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논집, 30권
- 22) 정삼호(2000). 현대패션모드, 교문사, p. 133.
- 23) 김영자(1998).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p. 13.
- 24) 한수연(1993). 앞의 글 p. 93.
- 25) 이경희(2001). 20세기의 모드, 교학연구사, p. 194~196.
- 26) 이소영(1998). *The Pursuit of Individual Freedom in Rudi Gernreich's Fashion Designs*, 복식 38호, p. 128.
- 27) 간문자(1994). 앞의 글, p. 73.
- 28) 이경희(2001). 앞의 글, p. 195.
- 29) Paul frischauer(1992). *Knaurs Sittengeschichte der Welt: Knaur Taschenbucher*, 이윤기 역, 세계 풍속사 下: 르네상스에서 섹스혁명까지, 까치, p. 370.
- 30) 최경희(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의 디자인 분석,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6권 5호, p. 83.
- 31) 하지수, 김민자(1993).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원시주의 미술의 조형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21호, p. 194.
- 32) Sexual sign(2003). Vogue Korea 2003 2월호, p. 152.

(2004년 8월 5일 접수, 2004년 9월 8일 채택)